

다음 주 도내 230억원 상당 시설공사 분야 개찰

다음 주 도내에서 230억원 상당의 시설공사 분야 개찰이 이뤄진다.

7일 강원지방조달청의 주간 입찰 동향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4일 까지 닷새간 도내에서 진행되는 시

설공사 분야 개찰예정건은 총 11건으로 전체 추정가격은 230억4,265만원이다.

우선 11일 양양군의 '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'이 추정가격 42억

2,143만원으로 개찰된다. 또 12일 속초시 하수도사업소가 '설악로 외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(118억2,306만원)'을 이 시기 최대 추정가격으로 개찰에 나선다. 윤종현기자